



# 북유럽 도서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다



글 | 한배수

경기도청 교육협력국 국장  
parkung@gg.go.kr

지난 9월 초, '경기도 도서관정책 국외연수 과정'을 통해 노르웨이, 스웨덴 국립도서관과 오슬로, 스톡홀름, 핀란드의 투르쿠, 헬싱키 시립도서관들을 방문하였다. 유럽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친 장대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토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켜 온 도서관 문화와 운영기법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양적 팽창을 이룬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방문한 도서관마다 자신들의 도서관 운영 및 우수 정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시설소개가 이어졌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왜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오슬로 시립도서관과 노르웨이어로 발간되는 모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검색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국립도서관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한 후 설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도서관 플러스  
기사를 찾아오



다섯 번째,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도서관 집기들을 비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서가는 까치발을 하지 않아도 쉽게 책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었고, 꽂혀있는 책의 제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서가 위쪽에서 조명이 비치며, 열람석에는 개인별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있었다. 열람석 가까이 있는 의자와 쿠션, 카펫 등은 마치 각 가정의 거실과 소파 같은 느낌을 주어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여섯 번째, 도서, 기록물, 도서관 자료 등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었다. 납본법을 개정하여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2010년 이전의 모든 도서를 디지털로 모두 전환하고 있었으며, 언론사와 협조하여 모든 신문과 방송 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도 추진하고 있었다. 아이패드와 노트북까지 대여하여 전자책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데이터마이닝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구축 중에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필름을 판독·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을 따로 두거나, 세계 각국의 신문과 잡지를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일곱 번째, 시민들이 도서와 자료를 대출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었다. 북유럽도 최근 이민자 증가로 인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을 위해 58개 나라의 언어로 된 도서와 자료들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전통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 비디오물 그리고 시민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까지 대여하고 있었다. 또한 한 번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건수에 대한 제약이 없고, 대출기간도 4주 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거나 기한이 아예 없는 도서관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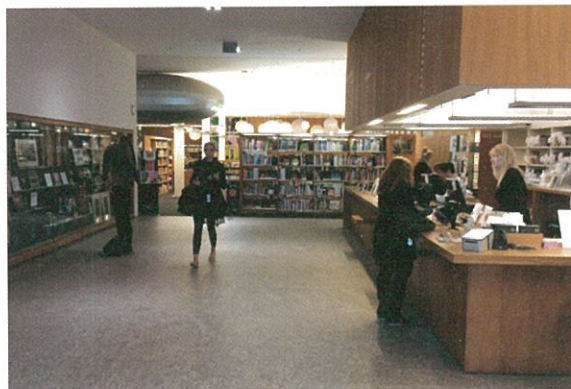




## 도서관 플러스

북유럽 도서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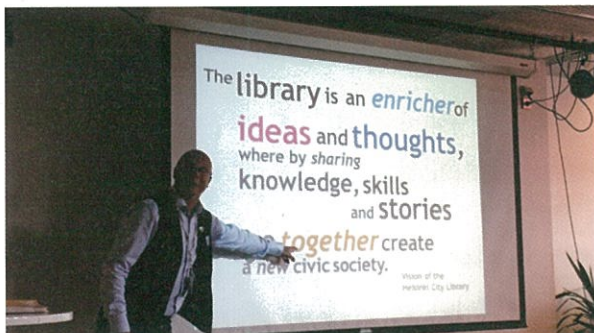
여덟 번째, 도서관서비스 현황 파악 및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활용하고 있었다. 단 순히 장서 수, 대출 건수로 도서관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방문자 수, 도서관 이용 시민 비율, 방문자의 자료 대출 건수 등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활용하고 있었다. 자료에 대해서도 연간 대출횟수를 측정하여 1년간 한 번도 대출되지 아니한 자료는 폐기하거나 시민에게 저가에 판매하여 수장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 어느 서가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자동 분류 기계로 처리한 후 사서가 최종 이송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아홉 번째, 도서관 자동화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었다. 도서자료의 대출 관리를 위해 회원, 자료대출, 서가 등의 분야에서 바코드 방식 이외에 RFID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보관하고 색인할 수 있는 수장고 체계를 갖추고, 반납된 자료를 어느 도서관으로 가야 할 것인지,

마지막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마인드였다. 핀란드시립도서관의 모든 사서는 노란색과 보라색 바탕에 흰색으로 된 큰따옴표 부호(“)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근무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지원한다.”는 행동 수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조끼를 입고 편하게 이용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핀란드시립도서관 사서들의 얼굴엔 무엇이 즐거운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북유럽 도서관들을 둘러보면서, 문화와 역사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며,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두서없이 나열한 여러 시사점들은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도서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㉞